

몽골에 오면 서쪽으로 가라

★★★★★ 2020년 05월 01일

▶ KOMONG L.I.A (코몽 어드벤처)

비글미 넘치는 가이드양과 몽골남자 같지 않은 훈남과 떠나는 여행

거대한 설산과 호수 자연을 제대로 만끽하고 싶다면 서몽골 강추

괜히 징기스칸이 서쪽으로 진출한게 아님



강오석

별 보러 나들이 가자!!

★★★★★ 2020년 05월 07일

▶ KOMONG L.I.A (코몽 어드벤처)

짧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하는 시간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은 여행이었어요!!



윤여명

몽골의 진짜 매력을 느끼고싶다면!!!

★★★★★ 2020년 05월 10일

▶ KOMONG L.I.A (코몽 어드벤처)

한국여자 코몽언니와 몽골남자 바비님과 떠나는

즐거운 몽골 서부여행~~~

진짜 몽골의 초원과 자유가 뭔지

보여주시는 여행이었어요

말씀만 드리면 썩 리얼 현지인 체험도 가능해요ㅋㅋ

모든 여행일정과 식사 등 다 좋았지만

무엇보다 드론영상으로 여행기록 남겨주시는게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ㅠㅠ

다음 몽골여행도 코몽어드벤처입니다!!!



워니꾸

남고비로의 가족여행 최고였다!!!

★★★★★ 2020년 07월 27일

▶ KOMONG L.I.A (코몽 어드벤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는

첫 몽골 여행으로 고비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나 여행의 시작과 함께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차량운행과 운전실력에 있어서 최고중에 최고였던 기사님과

그리고 고비 가족여행을 위해 특별히 섭외해 주신 가이드님으로 인해

두번 다시 누리지 못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원래 일정 외에 기사님의 액티비티한 체험 선물과

삶에서 물어나는 몽골에 대한 해박함을 갖춘 가이드님의 설명은

몽골에 대한 이해를 더욱 더 깊게 해 주었네요!!

아울러 이번 여행을 통해 숙소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대초원에서 목었던 유목민 게르가 무척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튼 여행전부터 세심한 배려를 통해

저희 가족 여행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준 코몽양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추신: 흥고르엘스 2박은 정말 최고였음~~ 즐겨보기 >>



John Lee

2021년 푸르공으로 다녀 온 자브항으로의 가족여행

★★★★★ 2021년 10월 20일

▶ KOMONG L.I.A (코몽 어드벤처)

2021년 8월 둘째 주 자브항 여행을 다녀오고 정신없이 생활하다가 이제야 글을 남깁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로도 무언가 부족한 최고의 여행이랄까?

코로나 상황에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제주도에 있는 코몽양에게 연락하게 되면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게 다녀온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을 출발하기 마지막 순간까지 사장님으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다하는 코몽양의 투철한 프로의식과 하늘이 도우셨는지 자브항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이 한히 꿰뚫고 있던 푸르공 기사님 그리고 여행기간 내내 가이드와 드론촬영으로 동행했던 바비 사장님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진 여행은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지금도 여행기간 중 촬영되었던 하르노르에서의 드론영상을 보며 행복했던 그 순간의 감정을 종종 떠올리고 있습니다. 바비 사장님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드론촬영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작년 고비여행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차강노르 옆에서의 2번에 걸친 텐트 숙박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저희 가족에게는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삼시세끼를 스스로 해결해야했던 여행이지만 지나고 난 후 되돌아보면 너무나 기억에 남는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르노르, 샌지스하트, 모하트린 강, 출로트 협곡, 호르거 화산, 차강노르, 엘승타사르헤... 그리고 오고가며 지겹도록 보았던 몽골의 동물들과 풍광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낮에 단잠을 자고 난 후 느껴지는 기분 좋은 행복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여행을 지휘했던 코몽양과 동행했던 훈남인 바비 사장님 그리고 푸르공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바비 사장님!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심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함을 표합니다. [줄여보기 >>](#)



John Lee